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제27대 제8대

제36대

장로, 집사장립 및 권사 취임예배

4월 27일(목) 오후 7시 본당에서

교회는 오는 4월 27일(목) 오후 7시 제27대 장로, 제8대 집사 장립식 및 제36대 권사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 제27대 장로 장립을 하게 된 박인건 집사는 지난해 9월 27일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후 교회에서의 준비교육과 노회의 고시를 마쳤다.

또한 제8대 안수집사로 장립될 30명과 제36대 권사로 취임할 50명은 금년 1월 17일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어 10주간에 걸친 교육과 교회에서 행한 고시와 면담 등을 거친 후 장립과 취임케 되었다. 각 분야에 걸친 교육내용과 성경 한번 통독하기, 기도원에서의 기도회 등을 통해 새로 장립되는 집사들과 취임하게 되는 권사들은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간의 친교도 돈독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오는 27일(목) 장립 및 취

임 예배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 고영민 목사의 기도, 노회 서기 원철희 목사가 성경봉독, 호산나찬양대의 찬양, 중경노회장 서기행 목사가 '새 시대 새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설교 후 서약과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와 당회장의 권사 취임기도가

있을 후 당회장이 공포함으로 이들은 장로, 집사, 권사로서 교회 앞에 행하게 된다. 또한 임직자에게 권면은 중경노회장 이만수 목사, 교우에게 권면은 중경노회장 박호원 목사와 축사는 중경노회장 이규일 목사가 하며 김창인 원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된다.

이처럼 온 교회와 노회가 함께 중요한 의식을 행함에 있어 본인들은 물론 온 교우가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심들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제26대 장로장립식에서 안수위원들이 안수하는 장면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4월 25일, 분당 창조 교회 절교
- 4월 27일, 장로,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식
- 4월 28일,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특강(충현기도원)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4월 26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 4월 26일,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특강(기도원)
- 4월 27일, 장로,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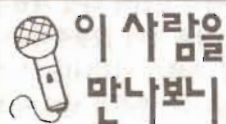
청지기훈련 일정 일부변경

제4연합교구와

훈련받지 못한 사람 5월 3,4일

금주에는 모이지 않아

지난 4월 5,6일부터 시작한 '93년도 청지기 훈련은 금주에는 제27대 장로장립식, 제8대 집사장립식, 제36대 권사취임식 관계로 모이지 않으며 따라서 4월 26,27일로 예정된 제4연합교구(3,9,10,11,12,17교구)가 5월 3,4일로 연기되고 이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훈련을 받게 되어 1993년도 청지기훈련을 마무리 짓게 된다.



● 장애인의 날에 연주한 이재혁 형제 ●

시각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로 우뚝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 서울 아카데미 심포니 제25회 정기연주회(지휘 장일남)가 '장애인을 위한 대음악회'란 이름으로 오후 8시부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의 메인 레퍼터리는 이재혁 형제가 연주한 생상의 피아노협주곡 2번이었다. 이재혁 형제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축하합니다. 어제 공연은 어땠어요?

▷ 제대로 못해서 오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허설 때는 무리가 없었는데 청중들이 많이 오시고, 웬지 모를 긴장이 되어서 좀 거칠어 친 것 같습니다.

▶ 피아노는 언제부터?

▷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선 책(점자)이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구해와 공부했습니다. 대학입학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지요. 그런데 어느 선교회에서 시각장애자를 위해 악보 뿐만 아니라 대학교재까지도 점자로 옮겨주는 일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 중에 어느 부부가 악보 점역을 해주어서 가능했지요. 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습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어던데?

▷ 그렇지요. 어머니(이수자 권철)가 무척

수고를 해주셨지요. 우선 자료를 구하고 그것을 점역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다시 암보해야 하기에 다른 학생이 1년에 5,6곡을 소화한다면 저는 2,3곡 밖에는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많은 곡을 다루어 보아야 하는데 그럴수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레슨할 때도 동작이나 자세 등을 일일이 말로 전달받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요.

▶ 교회는 언제부터?

▷ 유년주교부터 다녔지요. 중학교 때는 기독교생 서클에도 들고 하면서 열심히 다



니다가 대학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자원하여 룸메이트를 해준 선배가 있었는데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선배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집이 충현교회 근처로 옮기게 되어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었고, 주위의 권유로 청년2부에 나가게 되었는데 무척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번 연주회장에도 많은 청년2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 격려와 축하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하게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3학기 재이고, 허락되면 외국에 가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도 좋지만 저와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지요.

빠르고 격정적인 곡을 끝내자 연주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그칠줄을 몰랐다. 한국 한국 소화하고 연주할 때마다 마치 어둠과 암울한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런 기분일지도 모른다. 앵콜로 연주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그런 면에서 이재혁 형제 본인에게나 청중에게나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개개인 모두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형>

<월간 11교구> 발행

11교구(교구장 김은호 장로, 교구 교역자 조운재 목사, 김정순 전도사)에서는 교구원 간의 보다 긴밀한 교제와 정확한 교구의 소식전달, 교구 지도부의 결정사항 전달 및 전도회 보고 등을 전 교구교우가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월간 11교구>지를 발간, 4월 18일 4월호를 냈다.

국배판 4면에 걸친 <월간 11교구>는 각 지회 보고 및 공지사항, 특기사항, 환자들을 위한 기도제목, 교구원들의 사업체 소개, 간증문, 우리는 부부, 교구원 전출입 현황 등의 난을 마련하여 교구원 간의 유대강화와 관심을 함께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업인선교회
구인,구직,접수
전화 구내 205번으로

실업인선교회는 교회 내 구인, 구직을 도와주기 위해 구인, 구직 신청을 받고 있다. 구인이나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회(전화 552-8200)에 전화해 구내 205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업인 선교회는 4월 29일(목) 오후 7시, 메디나홀에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구봉서 장로.

충현강단



오병이어의 기적

(마 14:13-21)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 14:1,2)

신 성 중

<목사·당회장>



1 +1은 얼마일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둘이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국민학교때 배웠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1+1=2.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이 믿음에 따라서는 11이 됩니다. 1+1+1 하면은 물론 넷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1+1 하면은 1, 111도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예수님이 빈 들에 가신 이유

먼저 13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좇아 간지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빈 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빈 들로 가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 적의를 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때가 되매’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때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카이로스는 말을 기회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헤롯의 적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빈 들로 가셨던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빈 들로 가셨습니다(마 6:31).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쉬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안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빈 들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낮에 교구별로 기도원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육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은혜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청지기세메나를 할려고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 것인가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빈 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2.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빈 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빈 들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빈 들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에는 빈 들이요 떡도 이미 저물었으니”(15절) 기적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요 6:6)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빌립이 과연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이성적인,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정말 그때 배고픔에 처해있었던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동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벌써 메시아시대가 임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에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굶주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의무를 회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또 이 말씀의 뜻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주님께 배어달라보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람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어나게 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어린아이의 작은 회생입니다. 큰 회생이 아니라 작은 회생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작은 회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안드레의 작은 신앙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가져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회생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도록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손입니다. 바로 그 손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주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작은 회생,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만 맡겨두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작은 것을 취하셔서 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작은 것에서만 우리에게서 취하셔서 큰 것으로 만드십니다.

물 한 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모여지면 강이 됩니다. 그것이 더 많이 모여지면 바다가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쪼개고 또 쪼개십니다. 쪼개 때는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생활에서 일부를 쪼개고 내가 썩어 할 용돈에서 일부를 쪼개고 그것이 쪼개는 겁니다.

셋째로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빈 들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이 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주님은 목자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고 또 먹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백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 부족입니다.’고 핑계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핑계는 ‘아 여기가 빈 들인데 어디에서 이런 것을 구하느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마를까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소말리아가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거리가 먼 것은 틀림없습니다’라고 핑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도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캄캄한 데 어디로 감니까’라고 핑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무를 회피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점점씩 책망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 말은 굉장한 책망입니다. 작은 회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회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회생입니다. 큰 회생이 아닙니다. 믿음도 굉장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 작은 회생, 작은 사랑, 바로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다섯째로 남은 조각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것 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는데 오천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입니다. 주변 절대 내게 손해가 안갑시다. 부스러기가 더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작은 회생을, 작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스러기를 주시는데 그 부스러기가 처음 회생보다 몇 배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회생, 우리의 작은 신앙, 이것이 모여져서 예수님의 손에 드림으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보자기에 싸여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환란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희모만을 보고, 환란이 올 때 불평부터 시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여 원망한다.

영어의 격언에 “십자가 없이 편류관 없다”(No cross, no crown)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이다. 편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함과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할 때 주어지는 상급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이 닥아올 때 슬피 하거나 피로워 말고,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서 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바울이 말한 벌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데서 온다.

글 / 신성중 목사

어리석은 여로보암 왕

이영환

(초등5부 믿음12월)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나라로 나누이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임금에 되었어요. 여로보암 임금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임금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임금은 백성들이 유다로 가서 유다 임금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왕인 자기를 배신을 할 까봐 늘 걱정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군! 여봐라! 너희들은 당장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어리둥절했어요.

『네? 금송아지로 뭘 하시려고요?』

『잔소리 말고 아주 크고 멋지게 만들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이라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두 마리

나 만들었어요.

『음……그래! 아주 훌륭하구나! 한 마리는 북쪽마을 단으로 가져가고 한 마리는 남쪽마을 뱀엘로 가져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사람들은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임금님의 명령이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서서 선지자 아저씨를 부르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몹시 화가 났다고 일러주어라!』

선지자 아저씨가 뱀엘에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 임금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 자리를 빼앗고 다음 왕으로 요시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여로보암 임금은 금송아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금송아지가 갈라지고 재가 단 위에 쏟아져 내린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임금은 팔을 높이 올리며,

『저…… 저놈 잡아라! …… 어? 아니! 내 팔! 내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송아지가 갈라지고 재가 단 위에 쏟아져 내렸어요.

『잘 보았느냐?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아! 너의 신은 이렇게 엉터리란다!』

그때서야 여로보암 임금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저씨에게 돌같이 굳어진 자기의 팔이 움직이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저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로보암 임금님의 팔을 고쳐주셨답니다.

(이 원고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교회학교 초등5부에서 행한 성경이야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영환 어린이의 글입니다. — 편집자)



땀, 눈물 피를 받으소서

박철구

(침사, 제8교구)

땀 흘려 봉사하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이 몸이 다 하도록 정성을 쏟아부어
땀을 바치오리다 주의 일을 맡기소서

일할 것은 너무 많고 능력은 부족하니
성령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힘을 공급하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눈물 샘이 마르도록 정력을 쏟아부어
눈물을 바치오리다 간구 소리 들으소서

기도할 것 너무 많고 믿음은 부족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지식을 더하소서
신령한 은사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이 생명 다하도록 영육을 쏟아부어
피를 바치오리다 이 몸을 받으소서

구원할 자 너무 많고 말씀은 부족하니
말씀을 더하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신령한 축복으로 앞 길을 이끄소서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제4회 충현올림픽 안내

- 일시 : 1993년 5월 28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 8시까지 비가 안오면, 우천시라도 그대로 진행)
- 장소 :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정(종합운동장 길 건너편)



■ 게임 및 레크레이션

파도타기/아름다운 지구 만들기/무지개
용사들/천칭 저울 쏘기/장애물레이/매
거리 축구/축구/가장행렬/무지개 따오
기/자연보호/400M 계주
*유치부 어린이들의 메스게임
*사랑부·에바다부의 아름다운 지구 터트
리기

■ 예외행사

4개팀(연합교구)의 응원전/공개로 선발
된 피켓걸 등장(유정명양)/원로장로 8인
이 들고 입장하는 충현올림픽/개회식
을 장식할 일신여성 밴드부 연주/참석한
전교인 가족에게 주는 특별기념품
[행사 당일 개인승용차는 지양하고 대중
교통(버스·전철)을 이용하십시오]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 기도원→교회 버스 운행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 출발	오전 10시 오후 7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오전 10시 금요일집회후	
기도원 출발	오후 4시	오전 6시 오후 4시	오전 6시 오후 4시	오전 6시 오후 4시	오전 6시 오후 4시	새벽 2,5,6시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오늘 5월 22일 한국교회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성가합창제 출연을 앞두고 연습에 여념이 없다. 또 4월 27일(화) 오후 7시에 미혼자 모임을 갖고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남선우 장로) 지난 24일 토요일 연습 후 파트별 단합대회를 갖고 대원 간의 단결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한편 5월 5일 전체 단합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부활주일 그림그리기 대회 결과 대상에 이상우, 금상에 김형일, 은상에 김은진, 동상에 조현옥, 장려상에 홍지혜, 박아란, 이기성 어린이를 뽑았다.
-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부활주일 그림 그리기대회결과 1등 전순희 선생, 2등 정두연, 이정옥 선생, 3등에 김영아, 조혜옥, 이순옥 선생, 장려상에 이홍자, 김난향 선생을 뽑았다.
- ◆ 충현유치원(원장 정지자)는 4월 22일 10시에 자모회를 갖고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 선택과 그 지도방법'이란 특강을 들었다. 강사로 서울여대 아동학과의 문미옥 교수
-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 전도사)는 4월 25일(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 ◆ 초등4부(부장 윤광일 장로, 지도 장상기 강도사)는 교회설립 제40주년기념 성경암송대회의 출전자격을 위한 자체내 암송대회를 5월 16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부활절기념 성경이야기대회를 갖고 28명이 예선을 거쳐 6명이 본선에 올라 믿음 12반의 이영환 어린이의 '어리석은 여로보암 왕'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오늘(4월 25일) 안드레전도운동을 갖는다. 초등6부는 2개월 단위로 초청전도잔치를 열 계획이다.
-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희 목사)는 지난주 부활절 찬양대회를 은혜중에 마쳤으며 3회(4/25, 5/2, 5/9)에 걸쳐 임성환 목사(사랑부, 23교구, 전도위원회 지도)의 전도특강이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교육관 507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지난 주일(4월 18일) III, IV부 예배후 본당 앞 계단에서 고등부 찬양 인도팀이 찬양하고 회원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부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져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5월 4일 저녁부터 5일 오후까지 주로 야외로 나가는 계획들을 세우는 날에 충현기도원에서 작은 수양회를 갖는다.

- ◆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윤삼중 강도사)는 오늘(4월 25일) 10시 30분부터 교육관 514호실에서 '예수사랑 청년잔치'를 열고 찬양과 성극 '베드로의 일생' (강민 주연) 및 다과회를 준비하고 있다.
-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지난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교사, 임원 조장 연석회의를 갖고 새로 오신 장우천 강도사의 청년2부 교육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전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노방전도를 위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특강을 오늘(4월 25일) 오후 1시부터 교육관 514호, 청년3부실에서 갖는다.
- ◆ 장년2부(부장 이하영 장로, 지도 신평근 목사)는 오늘 교육관 414호실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
- ◆ 장년3부(부장 김재명 장로, 지도 윤영탁 목사)는 지도교역자인 윤영탁 목사가 지난 4월 16일 합동신학교 제14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서 축하를 했다. 취임예배의 설교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했다.
- ◆ 새가족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홍창민 목사)는 오늘 반별찬송가대회를 가져 회원 간의 친교와 단합을 하는 모임을 갖는다. 지정곡 206장, 210장 중 헌 장이다.
- ◆ 새가족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5월 5일 수련회를 계획하며, 수련

- 회 기간중 어린이 옷가지, 유아용품 등을 대상 품목으로 해서 미니 바자회를 열 계획이다.
-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지난 주일 우기전 장로의 '환절기 건강관리'란 특강을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



- ◆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는 오늘 1/4분기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또 5월 2일은 초청전도주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운동을 펼친다.
- ◆ 제1연합교구(1, 4, 15, 16, 19, 22교구)가 오는 29일(목) 오후 6시 만나홀에서 올림픽에 관련된 전 임역원이 모여 제1연합교구의 올림픽 출전 계획을 수립한다.
- ◆ 제4연합교구(3, 9, 10, 11, 12, 17교구)가 오늘(4월 25일) 오후 2시 30분, 교육관 205호실에서 함께 구역성경공부를 하고 제4회 충현올림픽 준비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소개

독일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제, 인심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대로 동서독 통일이후로 동서독 간에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채 서로를 비방만하고 있습니다. 서독에 사는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게 너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며 동독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이 교만하고 인정없는 기계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방하면서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때문에 직장을 잃고 고생한다고 하며 서독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동독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며 고생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외국인들에게 나타나 신나치와 극우 세력들이 폭력을 가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건전한 시민과 현직 대통령께서도 직접 '시민 권기대회'에 나서 민생안정을 호소하기도 하여 이들의 폭력이 감소하였습니 다. 그러나 요즘에는 극좌세력들이 점차 폭력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좌우파 세력의 폭력으로 인해 화염병이 투척되고 폭행, 폭력으로 외국인 7명을 포함한 17명이 죽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폭력, 폭행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공동의회, 제직임명과 각 부서 조직을 하였고, 제직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직들의 봉사 자질과 신앙자세를 바르게 갖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나우교회에는 제직 16명, 프랑크푸르트교회는 6명이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3월 5일 여성의 날에 각국 여성도들이 모여 세계기도의 날로 정하고 오펜박 말턴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가졌는데 우리교회도 참석하여 함께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8개국 교회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 특히 한국교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하여 간단히 한국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와 기도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런 새벽기도가 매일, 철야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고 할때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의아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4월 11일 부활절에는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부활절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서 제가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 기도제목

1. 프랑크푸르트 장로교회와 하나우장로교회 부흥을 위하여
2.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3. 저의 가정과 가족들의 영육과 건강과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4. 중순이 5월 5일에 재수술 받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서독 선교사 육 호 기 드림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사역 과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원로목사님 : 4월 25일(주) 분당장조교회 설교, 4월 27일(화) 장로,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식, 4월 28일(수)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특강(기도원)
· 신성종 당회장 목사님 : 4월 26일(월) 목회자세미나 특강,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특강(기도원), 4월 27일(화) 장로,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식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장로와 안수집사로 장립을 받으시는 분들과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1953·교회설립 제 40주년·1993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 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 1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

3. 제4회 충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손신애·고등부 회원)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 유 정 명 자매 (제 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선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